

오륙도 봄향기 맡고, 아홉산숲 비경에 쉬다 가다

민락교~오륙도 '갈맷길 구간' 트레킹 각광
400년된 '기장 아홉산숲' 영화촬영의 명소
회동수원지의 황토길, 맨발로 걷기에 제격

이어진다. 차마바위, 박골새, 농바위 등 아기자기한 기암들과 숲길의 고즈넉함이 잘 어우러져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동생말 전망대나 오륙도 공원 방향 모두 대중교통으로 찾기는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다.

“거, 0000하기 딱 좋은 날이네.” 영화 ‘신세계’에서 조폭 이종구역의 박성웅이 죽음을 직감하는 순간 내뿜어 화제가 된 대사. 영화 장면과 달리 이후 이 대사는 평소 퍽퍽 ‘워너비’(wannabe)한 상황에서 만족감을 표현하는 유행어가 됐다. “화창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4월의 봄날, 지금 박성웅의 대사를 응용한다면 딱 이런 표현이 어울린다. “거, 걷기여행하기 딱 좋은 날이네.”

●가슴 시원한 오륙도, 느긋하게 이어지는 해안선길
갈맷길은 ‘걷고싶은 도시 부산’이란 슬로건으로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628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트레킹 코스다. 현지 지형에 맞게 해안길, 숲길, 강변길, 도심길 등으로 구분한 9코스로 이루어졌다. 주요 트레킹 포인트 184개소에 총연장 길이가 863km에 달한다.

워낙 코스가 방대해 한번에 돌아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즘 1박 내지 2박 일정으로 부산을 찾다면, 그리고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슬로우투어’를 즐기고 싶다면 오륙도 해돋이공원에서 출발하는 갈맷길 2-2구간(민락교~오륙도)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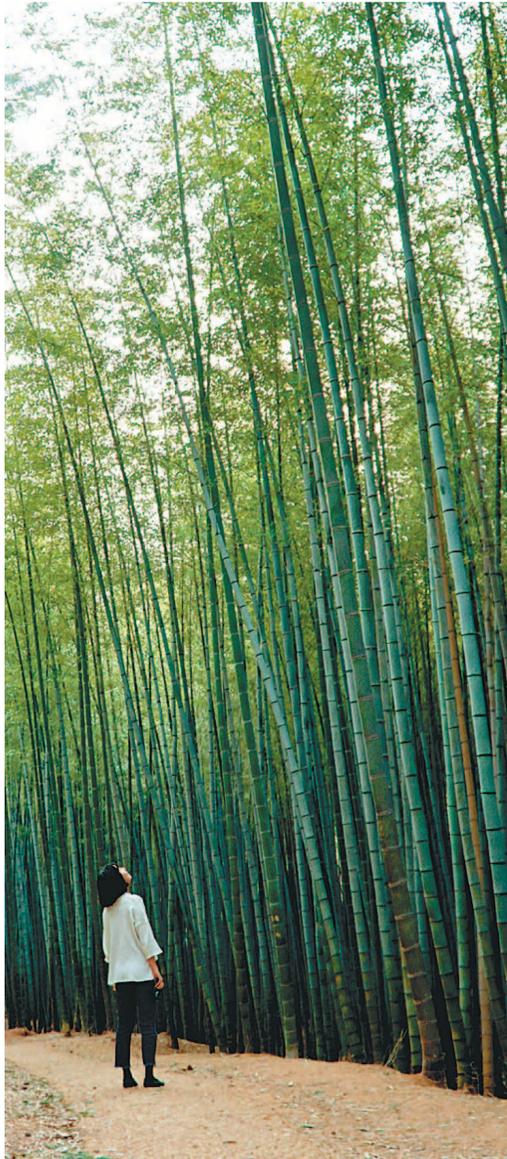
‘부산시 슬로시티 관광명소’로 지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난한 코스에 여유롭게 바다 풍광과 숲길의 꽃내음을 맡기 좋다.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의 가사에 나오는 오륙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남구 용호동이다. 물에서부터 방패섬-술섬-수리섬-송곳섬-굴섬-등대섬으로 이루어졌다. 보는 각도와 볼때에 따라 섬이 다섯개 또는 여섯개로 보여서 오륙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안에 오륙도를 바라보는 우리 바다의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있고 이곳부터 이기대 동생말 전망대까지 해안선을 따라 길이

●영화와 드라마 명소, 숨막히는 푸른 대숲의 장관
회동수원지는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담당했던 곳이다. 이곳에는 갈맷길 8-1구간(상현마을~동천교)이 있다. 역시 높낮이가 별로 없이 평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영강과 회동호를 돌아가는 경관이 빼어나다. 특히 물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길은 황토로 이루어졌는데, 맨발로 걷는 것을 추천한다.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초기에 비해 황토가 조금 딱딱해졌지만, 그래도 맨발에 느껴지는 황토 느낌이 꽤 좋다.

부산 외곽 기장군 웅천 미동마을에 있는 아홉산숲은 국유림이 아닌 개인 사유지에 있는 숲이다. 1600년대 웅천에 정착한 남평 문씨 일족이 400년 가까이 숲을 조성하고 관리했다. 산림청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한 곳이다.

아홉산숲이란 이름이 낯설다면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에서 하정우와 강동원이 대결한 울창한 대숲을 떠올려보자. ‘군도’ 외에 ‘혈녀:칼의 기억’, ‘대호’ 등의 영화와 드라마 ‘달의 연인’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잘 관리한 금강송숲, 진달래 군락, 편백숲, 차나무 재배지, 참나무숲 등도 멋있지만, 영화와 드라마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압도적인 풍광은 대나무숲이다. 공원 초입의 희귀한 구갑죽(거북 껍질모양의 대나무)을 지나 제법 숨이 가쁜 비탈길을 10여분 올라가면 엄청난 맹종죽 군락이 눈에 들어온다. 아홉산숲에는 ‘굿터’와 ‘평지대밭’이라는 두 곳의 맹종죽 숲이 있다. 두 군데 모두 숨이 턱 막히는 울창한 대숲이 장관이다. 푸른 대숲의 절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담양 죽녹원과 함께 아홉산숲이 최고의 선택이다.

부산 | 글·사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장 아홉산숲의 맹종죽 군락 ‘평지대밭’은 빠르게 자리잡고 하늘을 향해 꽃피듯 솟은 대나무들의 모습이 장관이다. 맨발로 닿는 황토의 질감을 느끼면서 느긋하게 걸음을 옮기는 회동수원지 산책길.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이 매력인 오륙도 해돋이공원의 스카이워크. (맨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여의도 한화 아쿠아플라넷63, 블라썸 행사



서울 여의도 한화 아쿠아플라넷 63은 여의도 봄꽃 축제에 맞춰 ‘아쿠아플라넷 블라썸 페스티벌’(사진)을 연다. 4월 한달 동안 이름에 ‘봄’이나 ‘꽃’이 들어간 고객에게 63종합권 50% 할인과 동반 3인까지 3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과 함께 봄과 어울리는 내비 표본 전시회도 진행한다.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기프트샵 앞에서 4월 주말마다 오후 2시와 4시에 무료 붓꽃 페이스 페인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소인권 구매하면 22일까지 붓꽃 머리핀을 증정한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현장에서 63종합권 2인 이상 구매 시 선착순 50명에게 한강 나들이에 쓸 수 있는 돛자리를 선물하고, 홈페이지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대인 요금 기준 최대 4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붓꽃 수조를 활용한 후 개인 SNS에 ‘#붓꽃놀이 아쿠아플라넷63’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설악 워터피아 티켓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7일 '경주벚꽃마라톤대회' 1만3000명 참가

한국관광공사와 경주시,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부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27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7일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1500여명의 외국인 마라토너를 포함한 1만3000여명이 참가해 봄꽃이 활짝핀 천년고도 경주를 달린다. 경주벚꽃마라톤은 1992년 일본과의 마라톤 교류를 위해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해외 홍보 및 참가자 유치, 마라톤 대회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해 왔다. 올해에는 중화권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콩·중국지역 여행 전문매체 및 여행업체 23명을 대상으로 대회 연계 답사여행(뽕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크루즈 준모험’ 부산에 반한 대만 여행객

14만톤 마제스틱 프린세스 부산 거쳐 기류행

크루즈는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빠른 분야이다. 매년 7~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승객수로 따지면 2009년 1780만 명, 2016년 2470만 명, 올해는 2720만 명을 예상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금까지 세계 크루즈 승객 중에는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 4년 동안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역시 중국. 전체 승객의 67.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0.9%의 비율로 대만, 일본, 싱가포르를 빼고 인도(3.9%), 홍콩(3.8%)보다도 작다. 인구나 경제규모와 비교해도 아직 크루즈 관광은 우리나라에서는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달리 보면 그만큼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출항지나 목적지인 크루즈는 없지만, 최근 부산은 아시아 지역 크루즈의 준모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준모험은 서를 형식으로 크루즈 관광객의 승하선이 가능한 기류행이다.

3월30일 부산에 입항한 14만톤급 대형 크루즈선 마제스틱 프린세스호(사진)도 부산을 준모험으로 삼아 3500명의 대만 승객이 현지관광을 즐겼다.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26일 대만 기류를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 사카이미나토, 부산, 기류 일정으로 운항했다. 크루즈 승객들은 30일 부산 남천동 벚꽃길 등 봄 풍경을 만끽하고, 자갈치시장, 해동용궁사, 국제시장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승객들이 부산 관광을 즐기는 동안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한국 미디어를 대상으로 선내를 공개하고, 선실부터 레스토랑과 실외·실내 수영장, 스파, 공연장 등 부대 시설을 소개했다.

김재범 기자

“채굴기 1대당 관리비 월 1만원, 위코모아(주) 전략적 투자”



보유중인 채굴기 관리비 월 1만원으로 전략적 투자기회 제공!!

- 채굴기 1대당 관리비 1만원(VAT별도) - GTX 1060 6way 기준
- 관리비 월 1만원 프로모션은 4월 8일까지 한정 모집 - 4월 9일부터 인상
- 채굴기는 최소 10대 이상부터 투자가능하며 월 관리비는 5년 선납 조건
- 채굴장 공간 제한으로 3,000대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마감 (현재 2,000대 가동 중)
- 5년간 전기료, 관리비, A/S 추가비용 일절 없음
-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사 직접방문 상담 - 방문 시 채굴장 견학 가능

4월 한 달간 파격적인 조건으로 선착순 마감!!

- 수익조건
- ▶ 보유중인 중고 채굴기를 현시세로 가치 선정하여 투자받고 수익분배하는 전략적 투자
 - ▶ 채굴기 투자시 시세 가격의 1%를 5년간 매월 현금 지급하고 2%를 매월 가상화폐로 적립하며 1년마다 적립한 가상화폐 중 50%는 지급하고 50%는 이월적립 (5년 만기에는 적립 가상화폐 중 70% 지급) / 장기투자로 인한 수익 극대화 전략 (채산성이 하락으로 수익이 낮아질 경우 자동 만기연장)

*위코모아 전략적 투자 제안 취지
가상화폐가 고공행진 할 때 비싼 가격으로 채굴기는 구매했지만 채산성과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 서를 전가로, 관리비 조사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민하다 반 값에 채굴기를 판매하고 채굴을 포기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계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채굴을 중단하지 않고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투자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